‘마지막 한 표까지 간절히’

김성주 의원, 48시간 집중 골목 유세

“전북 발전, 민주 정부일 때 가능”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국회의원은 ‘마지막 시간·마지막 한 표’를 모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48시간 집중 골목 유세’에 돌입한다.

김성주 의원은 “사전투표를 전후로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마지막 48시간 총력을 다해 전주병(전주시 덕진구)에 해당하는 15개 동 전역을 누빌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골목 유세에서 “48.63%에 이르는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한밤에 이루어진 ‘윤·안 야합’을 심판하고 제4기 민주 정부를 향한 도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평가하고 “민주 정부에서 만들어온 전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이재명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득권이 득세하고, 특권이 판치며, 검찰 독재의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대위는 전화팀·방문팀·유세팀을 중심으로 긴급 집중 행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미참여자의 본투표 참여와 수도권 지인 찾기를 통한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선관위, 선거일 투표관리 대책 발표… 오후 6시~7시30분까지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은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투표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다고 사과드린다”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

확진자 등은 선거일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함에 투입하게 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민생행복 책임질 후보”

전북도 직능·사회단체 3만명, 이재명 지지 선언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어야”

이재명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전북총괄본부 우범기 본부장을 비롯한 전북도내 직능·사회단체 3만여 명이 7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열린 선언에서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부정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국가 대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검찰공화국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명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생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라는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기회가 공정한 나라, 더 아픈 곳 더 힘든 곳을 살피는 민생대통령을 약속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균형발전위 전북본부장(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은 “정권을 뺏기면 전북출신은 중앙에서 클 기회조차 얻을 수 없고, 전북예산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전북을 위해, 우리를 위해 차기 민주정부 대통령은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 김윤덕 의원, 용화숙 노무현정신 계승연대 전북여성대표,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도당청년위원장, 전주시 복싱협회 이경철 회장, 김용권 전 전북노사모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전북총괄본부 우범기 본부장을 비롯한 전북도내 직능·사회단체 3만여 명이 7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치 야합, 국민 심판 받을 것”

김윤덕 의원, 전주 갑 김원주·송승용 시의원들과 함께

1만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 호소… “시민들의 힘 보여달라”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7일 ‘전주갑 김원주·송승용 시의원과 함께하는 1만3402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에 참석해 “윤석열과 안철수의 정치 야합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주 갑 김원주 시의원은 경기전 앞에서 전주시민 2291인과 함께하는 이재명 지지선언에 나섰다.

이어, 송승용 시의원은 전주시 평화동 신성공원에서 전주시민 1만111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을 이어갔다.

김윤덕 의원은 “3월 9일은 검찰공화국, 기득권자 배불리기 등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 발전으로 가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서민의 아픔을 알고,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에게 표로써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하무인 윤석열과 국민기만 안철수의 비열한 정치 야합이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주 시민과 도민, 국민이 대한민국과 전북 발전의 열망을 모아 표로써 정치야합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전주 갑 시·도의원이 중심이 돼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준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주 전주시의원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소년 노동자로 일하면서 공부한 이재명은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서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와 함께할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안철수와 단일화 했다면 이재명은 국민과 단일화 했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송승용 시의원은 “3월 9일 전주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저지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며 “전주 갑이 똘똘 뭉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7일 ‘전주갑 김원주·송승용 시의원과 함께하는 1만3402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에 참석해 “윤석열과 안철수의 정치 야합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역 광장 중심 권역별 광장 조성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익산 문화예술 정책 발표

익산시장 출마예정자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심쿵정책 4탄’으로 문화예술정책과 함께, 365일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축제 도시 익산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큰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광장이 있음을 강조하며, “원도심 익산역 광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광장을 만들어 공연, 축제 중심의 사람이 모이는 광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익산 전역에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흥미로운 축제가 1년 내내 유치된다면, 소상공인, 농민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또, “K-문화를 대표하는 인화동 한스타일거리와 문화예술 장인들을 지원하고, 시민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공방거리를 조성”을 약속하며 “문학 ‘시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한국의 문학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익산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차관은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에 관련해, 철저한 심사, 검증과 절차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5일장(북부, 황등, 함열, 금마, 여산 등)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5일장 순회공연단’ 출범을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대한민국 대전환 위해 ‘엄지 척’ 전북 태권도 동호회 회원들이 7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연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국 일념으로 이재명 후보 선택을”

유창희 전 부의장 대시민 호소문 발표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투표 참여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전 부의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시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라며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유 전 부의장은 “국정 농단 세력이 정권 찬탈에 혈안이 되었다”며 “배신과 패륜의 윤석열과 철새 기회주의자 안철수를 표로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합으로 맺은 암울한 미래를 거부한다”고 말 한 뒤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친인척들에게 선거 독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3.1절부터 시작한 서울·경기지역 출향인들에게 하루 한 번 9명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119 캠페인에 함께 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샤이 진보 결집, 중도 표심 공략”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장수군민 420명과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장수군 ‘샤이 진보’ 42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개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7일 양성빈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경제단 전북단장(이하 ‘전북단장’)과 스스로를 ‘샤이(shy: 숨은) 진보’라 밝힌 장수군민 420인은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선언했다.

양성빈 전북단장은 “여러 이유로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성향을 밝히지 않았던 평범한 장수군민 420명이 처음으로 실명을 밝히고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왜곡된 여론조사와 기울어진 언론환경 속에서 중도층의 흔들리는 표심에 이정표가 되기 위해 샤이 진보가 공개선언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명단 공개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 전북단장은 지난 1월부터 아침 길거리 인사를 42일간 진행해 오며 하루 10명씩 샤이 진보층을 찾아 민주정부 4기 수립의 염원을 공유하고 이날의 공개지지를 의지를 이끌어 냈다.

장수군수 선거 출마 예정인 양 전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농촌 대전환 공약에 발맞춰 세부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농업인이 고민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성빈 전북단장은 “매서운 영하의 날씨, 눈보라와 비바람도 이재명 후보의 민주정부 4기 수립과 부자 농촌 장수군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며 “42일간 환영해주시고 화답해 주신 장수군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전국의 샤이 진보가 결집하고 행동해 정치 교체를 이룰 때”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원택 의원 “부안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 환영”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전북 부안군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모한 ‘한빛권 광역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설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02억원(국비) 규모로 오는 4월에 착공해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상주인원은 20명 정도로 기존 전남 영광에 있는 방재지휘센터의 기능 상실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 보호 조치 역할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공공기관인 방재센터가 유치되기까지는 송하진 지사와 이원택 의원, 권익현 부안군수가 협업해 국회, 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 건의해 이뤄진 성과다.

이원택 의원은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한 부안군 피해 어민 보상 배제와 부안 방폐장 문제 등 부안군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컸는데, 부안에 공공기관이 유치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